

**문화와 예술분야 특별전시전 및 체험행사 공모**

국립서울과학관에서는 과학관련 전시 및 과학과 관련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분야의 특별전시전 및 체험행사를 공모한다.

접수기간은 2월 25(금)일 까지이며 신청요건은 국내외 박물관 또는 과학관이 소장한 전시품, 전문전시업체 특별전시 또는 단체 및 개인 소장품 전시, 학교 및 단체의 과학관련 체험행사 등이다.

전시관과 행사계획에 있어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기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문의 02-762-5205, 766-2161)

**한·중·일 '과학기술 협력펀드' 추진**

한국·중국·일본 3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호관심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해 100만~300만 달러 규모의 과학기술 협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중·일 3국은 오는 7월 서울에서 사상 처음으로 3국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열어 과학기술 펀드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동북아 과학기술 협력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이미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외에 과학기술 인력교류, 대형 연구시설 공동활용, 과학기술 포럼 개최, 3국간 공동연구 시범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초과학연구에 2천614억 투입**

**작년대비 12.1% 증액...BT·NT 등 특정연구개발비 22.2% 감소**

과학기술부는 창조적 기초과학연구와 우수인재 양성 등을 위한 기초과학연구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2.1% 많은 2천613억7천 500만 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등 미래원천·핵심기반 기술과 공공복지 기술 등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22.2% 감소한 4천 273억 원을 배정했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규모의 2005년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기초과학연구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지원형태별 투자규모는 ▲소규모 집단연구(특정기초연구) 671억 원 ▲중·대규모 집단연구(우수연구집단육성) 1천169억 원 ▲장비 확충 및 사이버 연구 등 연구기반구축 724억 원 등이다.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는 사이버 연구분야에서 연구자, 연구장비, 시설정보 등을 그리드 기반하에서 웹을 통해 활용하는 e-사이언스 구축사업과 미국, 러시아, 중국 3개국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글로벌 과학기술 협업연구망 구

축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투자규모는 ▲BT 1천327억 원 ▲NT 643억 원 ▲ST(우주기술) 1천565억 원 ▲차세대 성장동력 155억 원 ▲기타(융합·공공복지기술 등) 582억 6천500만 원 등이다.

**대덕밸리 고주파산업지원센터 2월 준공**

**330억 예산 투입해 멀티미디어실 등 연구시설 구축**



대덕밸리 고주파산업지원센터가 2월에 준공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2002년부터 국·시비 등 3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고주파산업지원센터가 유성구 대덕테크노밸리 7천200여㎡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준공된다. 지원센터에는 무반향실, 멀티미디어실, 공동장비활용실, 신뢰성 테스트실 등의 다양한 고주파 관련산업 연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미 에이티엔, 맥스웨이브 등 8개 고주파 관련 기업의 입주가 예정돼 준공과 함께 지원센터가 본격 운용되게 된다. 시는 이번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과 함께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덕Wireless 포럼 창립'과 '대덕Wireless Valley 조성사업', '지역기업의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문의 : 기업지원과 042-600-3586)

**'과학기술 평가사' 2006년 첫시험 실시**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국가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을 위한 '과학기술 평가사' 제도가 마련된다. 과학기술 평가사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운영,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R&D 전문 도우미 인력을 말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또는 대학 등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관련 법규, 특허정보, 연구기획 등의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생기는 불합리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규모 연구사업일 경우는 연구현장에 상주하며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도움을 줄 수 있어 R&D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 평가사제도는 지난 2004년 3월 제정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의해 12월 3일 시행령이 발표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국가자격증 발급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으로 관련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기술평가사는 개인이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하는 국가 자격증이다.

6. 1) 세계 각국의 물리학계가 협력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지난해 1월 대통령업무보고시 금년을 '2005 물리의 해'로 지정하였고, 국회에서도 '2005 물리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된바 있다. 2005 물리의 해를 맞이하여 선포식 외에도 빛의 축제(4월 19일), 청소년 물리 홍보대사 선발, 아인슈타인 전시회(7월 1일~2006년 1월 31일, 국립서울과학관), 각종 학술회의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연중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문의 : 물리학회 02-556-4737, 과학문화진흥회 02-538-9044)

## 2005 '물리의 해' 선포식

- 빛의 축제, 아인슈타인 전시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 풍성 -



한국물리학회(회장 김채옥)는 학계, 연구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주한외교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1월 21일 LG 강남타워에서 '2005 물리의 해' 선포식을 가졌다.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축사에서 '2005 물리의 해' 행사를 통해, 일반대중이 물리학 등 기초과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과학계가 합심하여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05년은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이론을 발표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UN이 '2005 국제 물리의 해' 선포를 결의하고(2004.

## 생활과학교실 개소 ... '자연 속의 나노세계' 과학활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이정순)은 지역주민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과학자가 직접 참여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과학활동을 하는 생활과학교실 개소식을 열고 '자연 속의 나노세계' 과학활동 프로그램을 1월 20일 대전 성남1동 동사무소에서 실시했다. 생활과학교실은 대전 지역 정부출연연구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기초(연) 과학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번 성남1동과 하게 될 과학활동 프로그램은 '자연 속의 나노세계'였다. '자연 속의 나노세계' 프로그램은 성남1동 사무소와 연구원 대덕본원(유성구 어은동)이 원격실험시스템을 통해 실험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의 미세구조를 관찰한다. 연구원은 앞으로 과학 문화 사업을 정착시켜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계획이라 한다. (문의 : 나노환경연구부 042) 865-3443/3531) ㉠

### '물리인의 각오'

- ▲ 물리학은 자연과학의 기초학문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대중 과학문화를 선양하는 첨병이 된다.
- ▲ 물리학은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기초과학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여 창의적 인적 자원 양성에 앞장선다.
- ▲ 물리학은 반도체, 에너지, 환경, 생명 및 정보화 등 물리학을 기초로 한 원천 기술 개발을 선도하여 국가미래산업기술의 중추가 된다.

정리\_ 이재성 기자 jsl@kofst.or.kr